

존경하는 三星電子 株主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株主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무역이슈 및 각국의 통화정책 변경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 사업 측면에서도 주요 제품의 경쟁심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株主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대 실적 달성

2018년 매출은 약 244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0% 증가한 약 59조원을 기록하여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메모리 사업은 글로벌 대외환경 불확실성 영향 등으로 4분기에 업황이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서버/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업계 최초의 2세대 10나노급 DRAM 및 5세대 V-NAND 등 첨단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 가운데, 고용량 서버 DRAM/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실적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EUV 적용 7나노 공정 개발을 업계 최초로 완료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지속 강화하였고, 시스템 LSI 사업은 업계 최초 5G 모뎀 개발 및 AP/이미지센서 제품의 전장/IoT로의 응용처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우, OLED는 Full-Screen 스마트폰 패널 및 지문센서 내장 패널 등 차별화된 신제품 출시와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사업 리더십을 제고하였으며, LCD는 어려운 시황 가운데 업계 최초 8K 해상도 TV 패널 양산 개시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무선 사업은 듀얼 카메라 및 스마트 S 펜 등 차별화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9 과 Note9 출시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또한, 갤럭시 A 시리즈와 같은 Mass 제품에도 멀티 카메라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쟁 심화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AI/IoT를 기반으로 한 당사 고유의 생태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확장하여 미래의 추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TV 사업은 초고해상도 제품인 QLED 8K TV의 글로벌 출시를 통해 초대형화·초고화질화 트렌드에 맞는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Bixby 기반 음성인식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The Frame TV와 같이 디자인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하는 등 프리미엄 제품 역량을 강화하여 2006년 이후 13년 연속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가전에서도 스마트 기능이 더욱 강화된 Family Hub 3.0 냉장고와 큐브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서 등 혁신제품 출시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회사는 또한 전장사업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에 인수한 하만(Harman)의 전장사업 기술에 삼성전자만의 IT 노하우(5G, OLED,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를 접목하여 높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사간의 기술 결합을 통해 처음으로 공동 개발한 Digital Cockpit은 차세대 Mobility Life의 비전을 제시하여 시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등 향후 인포테인먼트와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속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 개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2018년에도 지속하였습니다.

먼저, 이사회 책임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 부문 CEO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었고,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의사결정 참여 유도 등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정착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 및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다양성에 기반한 포용적인 이사회 문화를 구축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조직문화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2017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株主가치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였고, 후보 선임에 있어서도 사외이사들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노력들이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株主환원 계획의 충실한 이행

우리 회사는 株主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株主환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앞서 2017년 10월에 대폭적인 배당 증대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한 株主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2020년 3년간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50%를 株主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매년 9.6조원 수준의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총 배당은 금번 株主총회 승인을 전제로 2017년 5.8조원 대비 약 65% 증가한 연간 총 9.6조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된 분기별 배당을 포함한 2018년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416 원, 우선주 1,417 원입니다.

또한, 회사는 2017년 5월 株主가치 제고 차원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중 50%를 소각한 이후, 2018년 12월 잔여분 50%에 대해서도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 소각의 결과 2017년말 대비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약 7%, 우선주 약 9% 감소했으며, 주식수의 감소는 주당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株主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투자자 저변 확대와 유동성 증대 등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50:1의 액면분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작년 대비 대폭 증대된 배당의 혜택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株主 중시 경영 원칙을 고수하면서 株主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株主환원 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株主 여러분!

2019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무역 분쟁의 불씨가 상존해 있으며,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에코시스템 등 다각적인 분야로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많은 기업에 있어 성장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 생존 또는 퇴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차세대 제품 및 혁신기술로 신성장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초일류 100년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적인 실패를 격려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투자로 미래 지속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공급·고객 관리 등 전체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기존 사업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회사의 강점인 스피드 및 운영 효율을 더욱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리더십을 확보할 것입니다.

끝으로, 회사는 환경·안전보건(EHS) 관리시스템을 경영에 내재화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안전문화 수준을 평가하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제조사업장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부분도 함부로 지나치지 않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임직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안전우선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株主 여러분!

금년은 우리 회사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10년전 창립 40주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IT기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올해는 일류 IT기업을 넘어 미래 50년을 위한 초일류·초격차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9년 株主 여러분 모두 뜻하는 바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남

Keenam Kim

삼성전자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이상훈

Sanghoon Lee